

장흥 지역 숙원사업 해결 ‘금물살’

탐진강 하천정비·천변테크 설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장흥댐 생태공원 재산권 이관,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연계
익산국토관리청·수자원공사와 협의...긍정적 답변 받아

장흥군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실마리를 풀었다.

장흥군은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묵은 지역 현안에 긍정적 해결법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은 장흥군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탐진강 정비사업과 천변인도 설치를 건의했다.

장흥읍 3km 구간을 중심으로 한 탐진강 정비사업(10억원)은 강바닥에 쌓여 있는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 시설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는 악취를 유발하고 모기 서식의 온상이 돼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장흥군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장흥군은 탐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약 1km 길이의 천변테크(인도) 설치(13억원)를 건의했다.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인도는 탐진강 서편 옹벽을 이용한 캔틸레버(한쪽 끝으로만 떠받힌 구조) 형식이 검토되고 있다.

천변테크가 들어서면 토요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동선이 주변 관광시설과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탐진강 대야보 제가설(25억원) 내용을 포함한 탐진강 종합개발 관련 장흥군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한 장흥군은 장흥댐 생태문화공원 장흥군 이관과 장흥 병입수돗물 공장 건립을 협의했다.

장흥댐 아래 위치한 생태문화공원은 14만968㎡ 면적에 생태연못, 수환경시

설, 전통문화공간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소유권과 관리권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각각 맡겨져 있으나, 장흥군은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산권 이관을 요청한 상태다.

장흥군은 생태문화공원을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지로 보고 있다.

장흥군은 9개 시군의 식수 해결을 위해 지역민이 많은 희생을 감내했고, 장성군 평림댐, 동해시 달방댐의 비슷한 이관 사례가 있는 것을 근거로 이 같은 건의를 했다.

장흥댐 물을 활용한 병입수돗물 공장 건립(30억원)도 건의했다.

장흥군은 장흥댐 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가뭄, 수질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먹는 물 확보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생태문화공원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는 재산권 이관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병입수돗물 공장 신규 건립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김성 군수는 “이번 협의를 통해 오랜 지역 숙원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업 추진을 매듭짓고, 건강과 치유 1번지라는 장흥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고병권 기자



김성 장흥군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익산국토관리청 김철홍 청장(사진 가운데)을 만나 사업 설명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성 ‘문자 사과’ 명품 명성 잇는다

스티커 제작·소포장재 차별화 적극 지원

장성군이 지역 특산품인 사과를 특성화하는 사업에 나선다.

장성군은 올해부터 사과에 문자를 새겨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자 사과’ 사업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문자 사과는 하트 문양, 기업 로고, 합격 문구 등을 넣은 사과를 의미한다.

장성군은 사과에 문자나 문양을 새기면 지역 특산품인 사과의 부가가치가 향상돼 농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격 기원’ 문자를 새겨 수확능력시

험 전에 판매하거나 특정 기업체의 이름이나 로고를 새긴 홍보용 사과를 생산해 판매하면 일반 사과보다 높은 가격에 사과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내 기업체와 농가의 계약판매 등을 촉진함으로써 상생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장성군은 밝혔다.

장성군은 문자·문양 스티커 제작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문자 사과 생산을 도울 방침이다. 특히 문자 사과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포장재를 차별

화할 계획이다. 캐릭터 포장재 등으로 사과를 날개 포장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겠다는 것이다.

사과는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성의 특산품이다. 전남에서 가장 넓은 재배지를 자랑하는 장성 사과는 다른 지역보다 한두 달가량 늦게 수확하는 게 특징이다.

사과 재배지의 최남단인 장성은 서해풍 덕분에 강추위가 없다. 서리는 물론이고 첫눈까지 맞고 자라기 때문에 당도, 강도, 식감이 뛰어나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아카데미, 권오중원장초청



제 1천28회 장성아카데미는 ‘비타민 주치의’로 유명한 아벤스병원 권오중<사진> 원장을 초청해 ‘중년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연다.

권오중 원장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대한 유방갑상선외과 의사사회 회장, 삼성서울병원 외과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30년 동안 유방암 전문의로서 노력해 왔다. 이날 강연은 생애 전환기라 불리는 ‘중년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장성=김문태 기자



KIA타이거즈 허영택 대표이사과 조계현 단장, 김기태 감독, 임동평 기아자동차 관제팀장 등이 안병호 함평군수와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사포관광지 2단계 조성사업 탄력

내년 KIA 2군 전용구장 완공

함평군은 학교면 곡창리에 조성중인 사포관광지를 기존 야구장과 연계한 특화된 스포츠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5일 KIA타이거즈 허영택 대표이사, 조계현 단장, 김기태 감독, 임동평 기아자동차 관제팀장이 안병호 함평군수를 만나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이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기아자동차가 학교면 곡창리 일대 3만3천715㎡의 부지에 2019년 상반기까지 ‘함평-

기아 웰린저스필드 퓨처스리그 전용구장(가칭)’을 완공할 계획이다.

2군의 서머리그 시간을 감안해 조명탑 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경기 및 관람이 가능토록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웰린저스필드를 개장한 데 이어 퓨처스리그 전용구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함평군이 한국프로야구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 밸런스워킹PT연구소와 협약

나주시는 걷기 운동 확산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최근 보건소 회의실에서 ‘밸런스워킹PT’교육연구소와 ‘전시민 워킹(Walking)클럽’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밸런스워킹PT’란 스스로 재활하고 치유하는 방식의 운동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밸런스워킹PT는 자세교정, 두뇌개발,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재활 및 유산소·무산소 운동 등 남녀노소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난해 대한민국브랜드대상 건강운동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나주시보건소는 밸런스워킹PT교육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걷기 지도자를 양성, 주민 주도형 걷기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지역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 시민의 생활터 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김영수 기자

영광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영광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분) 1만1천752건에 1억5천220만 원을 오는 31일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식품접객업 등 각종 인허가 증가와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록·지정 등 각종 등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2만7천원)부터 5종(4천500원)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 삼성전자 - 120만평

· LG전자 - 110만평

· 송탄역,진위역 5분

· 미군기지

· 평택항

· 고덕신도시 520만평

◆ 총 7필지 분양

◆ 건축 허가완료

토목, 도로공사완료

1필지 (약 200평)

평당 200만

할인 13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①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 매

전원주택 (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 교육

1)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실전 투자 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광산구 신가동 대방노블랜드(33평) 감정 3억7백 → 최저 2억1,500만

② 광산구 수원동 우미린 (33평) 감정 3억 → 최저 2억1천

③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 5천3백 → 최저 2천9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600만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1억4천4백

3) 화순 도곡 천암리 (무인텔) 감정가 37억4천 → 최저가 20억

4) 서구 치평동 금호쌍용 아파트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 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6) 동구 신산동 (상가주택)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7) 광산구 비아동 (주유소) 토지 546평 건물 178평감정가 18억8천 → 최저가 18억8천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8천

9)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상가주택) 건물 427평 토지 188평 감정가 19억8천 → 최저가 9억 7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3천

11) 전북 군산시 평화동 (3층 상가) 건물 336평 토지 188평 감정가 12억 → 4억 1천

A.P.T · 주택 · 공장 등

①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65평) 감정 5억8백 → 최저 4억5천

② 서구 용암동 금호타운 (24평)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③ 서구 치평동 상무리제 아파트(10평) 감정 8천7백 → 최저 6천1백

④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⑤ 북구 용암산아이루케이션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⑥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 (24평) 감정 1억6천 → 최저 1억1천

⑦ 서구 화정동 (주택) 감정 2억4천 → 최저 1억6천5백

⑧ 서구 미륵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1억3천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7억6천

⑩ 전남 영광군 배수읍 (대지 465평) 감정 2천7백 → 최저 2천

⑪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노유자시설) 감정 9억3천 → 최저 5억2천

⑫ 전남 영암군 신흥읍 (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 6억6천

010-6670-9800

010-7384-7800

CMYK